

産業社會의 前提

우리가 겪어야 할 試練

黃

〈亞洲工大教授〉

清

1. 産業社會란

우리는 요즈음 80年代에는 産業社會가 이룩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여 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産業社會가 어떠한 社會이며 또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논의가 없으며 80年代 産業化의 과정에서 갖춰야 할 것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적다.

一般的으로 産業化는 産業構造面에서 一次産業의 比重이 적어도 10%以下로 떨어지고 이에 反比例해서 二次産業의 比重이 높아지고 나아가 三次産業의 몫이 커져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區分과는 달리 産業에서의 勞動의 質的 內容의 中心이 어디 있느냐 함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勞動의 質을 肉體, 技能(正規修練과 教育過程을 요하는) 그리고 知識의 세가지로 區分해 볼때 肉體勞動中心에서 技能勞動이 中心이 된 産業高度化가 이루어지고 이에 知識勞動이 적극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어야 産業社會의 문턱에 서게 된다 하겠다.

이러한 개념규정에 내포되고 있는 바는 産業社會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技術蓄積의 高度化가 이루어져 있을 것을 前提로함과 同時에 肉體勞動의 熟練에서 技術의 熟練으로 그리고 知識의 蓄積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 前提가 된다 하겠다.

2. 先進諸國의 産業化過程

産業化가 일찍 이룩된 西歐先進國의 産業化過程을 살펴보면 그 根源을 大體로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에 두고 이것에서 基礎産業(重化

學工業)을 일으키고 다시 이로부터 聯關産業을 發展시키는 과정을 밟아왔음을 본다. 이런 과정에서 勞動力不足이 생겨 勞賃上昇을 가져와 이것이 다시 自動化, 裝置化해서 高度의 知識産業으로 유도되었음을 본다.

그러나 이런 外形的 變質現象만으로 産業化過程을 說明할 수 없으며 外形的變質속에 內包된 精神的基盤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하겠다.

歐美의 産業化는 中世以後 理性을 尊重해서 모든 現象의 原因이 自然的인 것으로 또 物質的인 것으로 說明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合理的決定과 나아가서는 科學的說明을 要求하는 분위기가 支配的인 것이 그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다.

둘째의 특징은 기독교 특히 新敎의 敎育에 따라 모든 人間은 勞動해야 하며 勞動하지 않는 者는 먹지 말지어다 라는 敎會의 가르침이 강하게 作用하여 各自에게 勤勞와 儉約을 美德으로 삼는 분위기를 형성한 것을 본다.

이러한 적극적인 勞動觀이 또하나의 특징을 낳아 勞動속에서 工匠本態(engineering instinct)의 發現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대해 후한 社會的報償을 베푸는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이르렀음을 본다.

이러한 특징들이 결과적으로 手工業을 中心한 中小企業의 發展을 보게 되었고 이들 中小企業들의 끝없이 새로운 것을 探究하고 새로운 것에 挑戰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이러한 自己職業을 尊重하는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한층더 높은 技術革新을 유도하는 原動力을 만들어 냈던 것을 본다.

이러한 歐美의 産業化過程에 대해서 우리가 留意해야 할 것은 産業化가 企業家, 技術者, 科學者들의 主體的 努力에 따라 이루어진 革新에 뒷받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는 빛을

못보았으나 熱心히 努力한 數 많은 職業人, 技術者, 企業家 그리고 科學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自己 職業을 高貴하게 생각하고 自己 일을 良心과 勤勉으로 해냈으나 이에 相應한 物質的 社會的報償을 결코 받지 못한 無數한 勤勞者들의 自己 희생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우리의 工業化過程에서 보는 특징

이러한 歐美의 工業化過程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工業化는 그 性格이 工業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商業이 바탕이 되어왔고 이를 통해서 工業化하려는 것을 본다. 그래서 흔히 우리의 것을 商業的工業化라 한다. 이는 처음에 完製品을 들여다 쓰고 다음 段階는 部屬을 들여다 組立하고 그 다음 하나 하나 可能한 것부터 만들어 나가서 結局에는 製品原料工業을 이룩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必要한 技術과 資本을 目體가 開發하고 提供할 수 있어야 하나 自己蓄積이나 開發이 되어있지 않으면 계속 先進諸國에서 導入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現實이 아직은 계속 導入하는 段階이며 技術使用料의 年間支拂도 2억弗에 肉迫하고 있고 年間 外資導入을 數十억弗씩 해야할 實情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工業化가 適切한 우선순위에 따라 秩序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편에서 高度의 技術을 요하는 化學工業들을 우리 손으로 건설하고 있는 반면 간단한 機械關係나 材料에 관한 技術을 體得치 못하여 海外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즉, 外見上 技術蓄積을 위한 投資와 努力이 不足하여 지극히 不均衡 狀態를 나타내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資

本蓋積에 대해서도 우리의 自體努力으로 이룩할 뜻이 他隣近國家에 比해서 낮으며 이점에서도 工業化의 意志가 不足함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

이러한 技術 및 資本의 不足現象은 工業化를 추진하려는 意志를 보이게 되면 될수록 심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工業化 과정에서 不可避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不足하다는 사실이 계속되는 것은 工業化의 基礎가 充實해질 可能性을 멀리는 것이라는 論理도 成立된다. 즉, 이는 우리의 工業化過程에서 이를 추진할 精神的 基盤이 특히 歐美의 경우와 比較해 볼때 약하며 이런 狀態를 놓고 과연 工業化가 成功의 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함을 反省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精神的基盤이란 앞서 歐美의 工業化過程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첫째 우리의 意識態度가 工業化의 原動力이 되었던 合理主義 또는 理性的인 것에 바탕을 둔 것인가 할때 우리는 아직도 多分히 情緒가 강하게 支配하고 있음을 본다. 또한 思考樣式으로 보아서도 工業化段階는 分析的이어야 하는바 오히려 直觀的이고 總會的인 性格을 띤 것이라 할 수 있어 바탕이 成熟치 못하고 있다 하겠다.

둘째로 勞動觀의 문제인바 勤勞를 美德으로 삼고 또 이를 통해서 自己를 昂揚한다는 歐美의 思考 그리고 高度의 職業倫理를 확립한다는 것에 比해 우리는 아직도 거리가 멀며 士農工商의 思想에서 오히려 工의 位置를 더욱 떨어뜨려 온 것이 지난 30年間이라 할 수 있는 現實에서 工業化의 밑거름이 되었던바, 일과 技術向上에 미친 職人들 없이 工業化가 어떻게 推進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는 것이다.

세째로 工業化의 主役인 企業家들의 行爲樣

態문제이다. 工業化란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技術을 尊重하며 製品이나 裝置한 作品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全力을 다하는 工匠本能이 강하게 作用하고 技術을 貴하게 생각하는 企業家들의 登場과 이들 사이의 경쟁으로 이룩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現實은 어떠한가. 工業을 통한 作品을 만든다는 企業家들은 成功의 확률이 적었으며 오히려 商業爲主의 思考方式을 지닌 企業家 심지어는 高利貸業者들이 成長하는 분위기가 되므로써 工業化는 그 推進力이 弱화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이다.

네째로 工業化를 추진하는데 주요한 정신적 자세로는 “勤儉節約”이 있는바 이로서 필요한 資本形成의 큰 몫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은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節約보다는 過消費現象이 계속되어 옴으로써 일터에서나 生活面에서 건전한 자세를 갖기보다 不勞所得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는 분위기가 造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섯째로 뒤늦게 産業社會를 이룩하는데 있어 基本的인 難題라 인식되는 바인 社會的 參與과 갈등의 激化이다. 歐美의 先進國들이 工業化를 시작할 때는 앞서 言及된 精神的 기반이 成熟되고 있었고 産業化에 有利하게 作用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産業化가 推進되는 속에 階級打破를 비롯해서 生活의 向上에 따른 부르주아의 行動을 모방하고 또 따라 하려는 傾向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後進國家가 産業社會를 이룩하려 努力하는 가운데 必然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과거 歐美의 産業化과정에서는 貧富의 隔差가 심화되는 양상이 생겼었으나 그래도 이것이 勤勞大衆의 意識에서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을 지녔었다. (말크스를 代表로

한 排戰者群이 있기는 했어도) 그러나 오늘날 이는 社會的으로 容納받기 어려우며 資本主義의 特徵인 排戰과 開拓의 代價가 치우쳐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게 作用하므로써 資本主義의 特徵—이를 一面 能動主義라 할 수 있는 發達한 革新과 擴張에의 意欲을 挫折시킬 위험마저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産業社會를 이룩하고자 함에 있어 積極的인 價値觀을 갖는 한편 보다 生産的인 思考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 온 歐美의 經驗을 생각해 볼때 많은 差가 있으며 그 差가 産業社會를 이룩하고자 意圖하는데 甚다란 制約要因으로 作用하게 될 것을 念慮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해 우리의 産業化가 이를 이룩하기에 앞서 마련되어야 할 前提(이것은 반드시 歐美의 諸條件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가 充足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産業社會를 이룩하려 할때 能動的으로 準備해야 할 것 또는 갖추어져야 할 것들에 관하여 우리의 現實에 비추어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産業社會의 건설이 단순히 工場 工業을 建設해 놓는 것으로 이룩될 수 있다는 幻想을 갖는 것이 위험한 일임은 分明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의 成就를 위해서 知覺있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안다.

「食品工業」誌 廣告案内

謹啓,

貴社의 日益隆昌 하심을 祝願합니다.

本會가 發刊하고 있는「食品工業」誌는 汎食品業界 여러분과 讀者들의 성원에 힘입어 創刊한지 어언 10개 星霜, 誌齡 60 號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食品工業」誌는 本會 機關誌로서 뿐만 아니라 食品業界의 代弁誌로 政策分析은 물론 業界 人士들의 對話의 廣場으로, 業界의 情報誌로서 所任을 다하고자 努力해 왔습니다.

특히「食品工業」誌는 심오하고 合理的인 理論과 業界가 쌓은 값진 經驗을 상호調和啓發케 하며, 研究開發 및 技術導入의 架橋로서 知의 源泉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항상 새로운 視角을 가지고 編

輯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發展하는 우리 食品企業의 이미지를 内外에 浮刻시키고 生産者와 消費者의 權益을 다 같이 伸張시키는데 寄與하도록 非會員 企業體에서 廣告媒體로서의 開放요청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企業體들에 요구에 부응키 위해 非會員企業體를 위한 廣告欄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本誌의 機能과 役割을 勘案하시와 보다 持續的이며 廣範圍한 廣告 效果를 위해「食品工業」誌의 廣告欄을 많이 活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食品工業協會

「食品工業」編輯室

265-8760. 266-6035